

인구소멸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기반의 체류형 모델 연구: 무주군을 중심으로

A Study on a Stay-Oriented Model Based on Cultural Content Archives for the Revitalization of Depopulated Regions: Focused on Muju County

김현태(Hyun-tae Kim)¹ | ¹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 ht.kim0729@jbnu.ac.kr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무주군 현황 및 문화자원 분석
4.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기반의 체류형 콘텐츠 모델 제안
5.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무주군을 사례로 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체류형 콘텐츠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와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해 무주군의 인구 구조, 문화·관광 자원, 정책 현황 및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축제 중심의 단기 방문 구조와 기록 자원의 체계적 관리 부재가 체류시간 연장과 관계인구 형성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아카이브된 자료의 콘텐츠화, 체류 경험 설계, 기록의 4단계 순환 구조를 제시하고, 체험단계·교육 단계·참여단계를 통해 방문객의 장기 체류 및 지역과의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기록관리와 지역재생을 위한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키워드 : 문화콘텐츠, 체류형 콘텐츠 모델, 생활인구, 지역 재생, 무주군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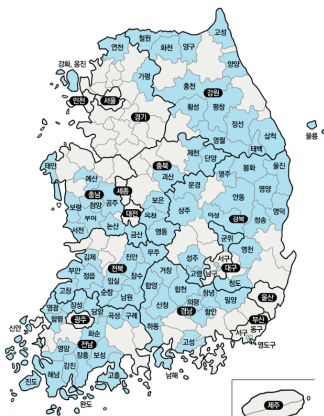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tay-oriented content model to expand the living population by utilizing a cultural content archive that systematically records and manages local cultural resources, using Muju-gun classified as a high-risk area of population decline as a case study.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regional analysis, the study examines Muju-gun's demographic structure, cultural and tourism resources, as well as its policy context and limitations. The findings reveal that a festival-centered short-term visitation pattern and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archival resources hinder the extension of visitor stay duration and the formation of relational popul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a four-stage cyclical structure consisting of cultural content archive construction, contentization of archived materials, design of stay experiences, and re-archiving of records. Furthermore, by proposing strategies that induce long-term stays and foster relationships between visitors and the region through stages of experience, education, and particip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offers a practical model integrating records management and regional regeneration.

※ Keywords : Cultural Contents, Stay-type Content Model, Living Population, Regional Revitalization, Muju Coun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6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가 아닌 ‘인구절벽’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발표하였다.¹⁾ 인구감소 지역은 2021년 10월에 최초로 지정하였으며, 지정주기는 5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대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원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그림 1〉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인구성장률이 2024년까지 0.07로 조사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마이너스를 유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수치와도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로 확인된다. 이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수가 감소되면서 지역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림 1〉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결과자료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14개 시군에서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무주군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현재 무주는 주민의 고령화와 함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들이 폐교되거나 상가들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면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무주라는 도시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1) AI TIMES, [기획-인구문제①] 인구가 사라진다 - 지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양준석기자(2025.04.16.)

이에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이 아닌 새로운 대응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주인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인구라는 개념은 외지 관광객, 체험 방문객, 관계 인구, 단기 체류자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비정주 인구가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머물면서 경제·문화·소비활동 등에 참여하는 인구들을 말하며,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자원들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콘텐츠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공간에 대해 제약 없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카이브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디지털 아카이브된 지역의 문화자원을 체류시간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체류형 콘텐츠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소멸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 이를 토대로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문화 콘텐츠 기반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체류형 콘텐츠 개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지역의 문화유산과 아카이브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연구 분야들을 분석해보면,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콘텐츠 활용, 생활인구 및 지역활성화 등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체류형 콘텐츠 관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간의 한계들과 보완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과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두고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희정 외(2016)는 “국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주제를 통해 체계적인 무형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측면을 제안하였으며,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구축에 대한 방법론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정연, 최효진(2020)는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지역학 아카이브 모델 연구”에서 제주학 아카이브 사례를 적용하여 지역학 아카이브가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교육 자원 허브이며, 이용자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역학 아카이브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아카이브를 연구와 교육에 있어 보존 및 정보제공 차원에서 연구를 하였으며, 아카이브를 활용한 콘텐츠 기반의 방문객 체류를 유도하거나 경험을 설계하는데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연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웅진, 김은애(2021)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전략에 관한 방안 연구”에서 지역의 여러 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콘텐츠 개발과 함께 관광전략들을 제안하였다. 즉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 활용 방안들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박소현(2024)은 인구감소 지역을 사례로 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방문객 특성과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는 지역 내에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유인하여 그들이 오래도록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축제나 이벤트를 중심으로 방문객들의 단기 체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로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개발로 확장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생활인구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는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보경, 최지선(2023)은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지역 유형화 분석”이라는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 전략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다만 문화, 경제, 교육 등의 측면에서 인구 변화 및 이동과 관련된 연구를 하지 못해 후속 연구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훈(2024)은 “생활인구 증가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에서 체류인구와 재정규모와의 상호 영향관계에 따른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다양한 제안들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구들의 이동, 지역유형 분석, 생활인구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방안으로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지만 공통적인 한계들도 조사되었다.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연구 분야에서는 지역 경제 및 인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장기체류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콘텐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연구는 축제 중심으로 단기 방문객들의 유입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장기 방문객 유입에 대한 측면은 다소 미흡하였다. 더불어 생활인구 개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정주형 생활인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모델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지 못한 한계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카이브가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들의 체류 경험이 중요한 데이터로서 이를 무주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콘텐츠와 결합하여 향후 방문객들이 장기체류 및 정주형 생활인구로 정착할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3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한 무주군을 대상으로 인구감소를 막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무주의 역사, 문화, 자연 등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생활인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체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에 무주군의 역사적·문화적·자연 자원인 적상산성, 안국사, 무주향교, 무주 낙화놀이, 무주반딧불축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다루고자 하며,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방안 등에 이르는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생활인구, 소멸인구, 문화유산 아카이브, 체류형 콘텐츠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후 국내외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기반 지역 활성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예로, 국내는 전주 한옥마을, 경주 역사문화도시, 강릉 문화도시 등의 사례를, 해외는 유럽의 소도시 재생 프로젝트, 일본의 지역 창생 사업 등을 분석하여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도출한 후 무주군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 연구 방법을 통해 무주군에 특화된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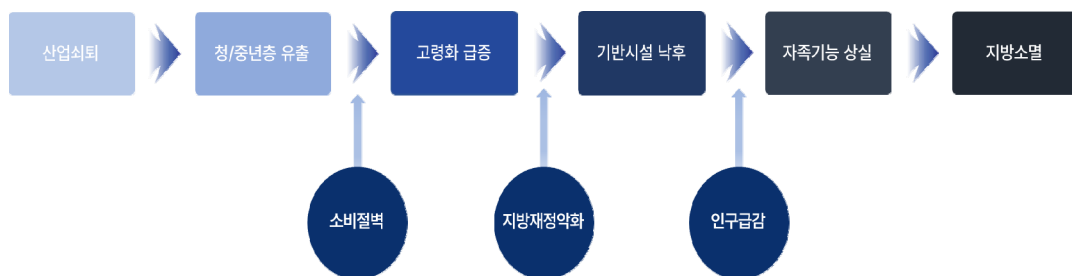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2.1 인구소멸과 도시재생

인구감소지역은 2026년 1월 2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정의) 12항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에 전국의 인구조사를 토대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6년 재지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과 산간 지역에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매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인구소멸 위험지수에 대한 수치를 조사하여 대한민국 인구수에 있어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위험지수 수치를 구하는 공식은 만 20~39세의 여성 인구수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며, 최종 결과값을 토대로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 여부 판정을 내린다. 예로, 결과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들어가고, 0.2 미만일때 인구소멸에 있어 고위험 단계로 분류한다. 이러한 위험지수는 단순히 인구수에 대한 감소를 넘어 지역의 인구 재생산 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에 2026년 1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138개(60.2%)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고위험 지역은 약 50여 곳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위험지역은 전북, 전남, 강원, 경북 등의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그림 2>와 같은 단계를 통해 지역이 소멸될 수 있으며, 경제 및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그림 2〉 지방소멸 단계²⁾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지역은 생산 기반 축소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 산업의 위축과 함께 지역 상권도 붕괴될 수 있다. 또한 젊은 청년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방세수와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지역소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부분에서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서비스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으며 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문화 향유의 질마저 저하될 수 있다. 예컨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중등학교의 폐교로 인해 기초교육에 대한 핵심 기반이 사라지거나, 인구감소로 병원과 약국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군단위 지역에서는 노인 단독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유산이 후대에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유지해 온 전통 축제와 마을 공동체 행사가 지역민의 감소로 운영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세대 간 문화 전승 및 계승마저 단절되어 지역의 정체성마저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삶의 만족도와 질마저 낮아질 수 있다. 환경적 측면으로는 사람이 떠나면서 남겨진 폐가와 유희시설로 인해 지역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안전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소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은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2025년 10월 국토연구원에서는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기조 발제로 정석 교수는 지방도시의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신도시 중심의 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을 지적하며,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재생 방안으로 "로컬로의 젊은 인재 분산"과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와 살자리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재생이 지역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 조영미(2020). 도시재생수법을 적용한 지방소멸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의 역량 및 자원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의미하며,³⁾ 주 목적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는 노후된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생활편의 증대 등 각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있다.⁴⁾ 또한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은 참여주체와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인구소멸지역은 거시적 방법보다는 지역의 특성 및 자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들을 토대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표 2〉 지방소멸지역의 지역자원 구분⁵⁾

구분	자원별 정의	대표적 구성요소
자연역사적 자원	접근성(환경적)/역사적 특성	• 지역으로 접근 용이 : 도로, 철도, 공항 등 • 자연경관 : 산, 바다, 화산, 폭포, 동굴 등 • 문화재 : 예술적 가치를 지닌 역사자원
물리적 자원	물리적 형태의 구조 및 기반시설 특징	• 건물 노후도, 건축물의 구성 및 배치 • 지역 내 기반시설 : 상·하수도
문화관광적 자원	지역 내 예술 및 문화자원 등의 보유 및 활용성	• 지역축제 및 행사, 예술품 등 • 지역의 대표적 관광시설 및 관광명소 등
이미지 자원	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 정도	• 정체성 :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 등 • 상징성 : 브랜드 및 인지도, 특산물, 음식 등
경제적 자원	지역 내 재정 및 경제활동	• 지방세액 • 노동력, 노동시장, 고용프로그램 등
인적 자원	지역의 인적 구조 및 특징	• 인구의 변화 및 생산가능 인구 • 학생 및 노인인구의 변화

연구자들은 지방소멸위험 지역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자원들을 분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국토연구원(2011)에서 정의한 5가지 자산(자연적 자산, 구조적 자산, 문화적 자산, 이미지 자산, 경제적 자산)에 지방 소멸위기라는 특성을 결합한 인적 자원을 추가하여 구분하였다(조영미, 2020). 그리고 〈표 2〉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인구유입, 지역소비 활성화,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2008년 전북 완주군이 지역 농가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로컬푸드 사업이 있다.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의 중소농, 고령농, 마을 공동체들이 다품목 소량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관계형 시장을 구축하였다(임주환, 2022).⁶⁾ 이를 토대로 농가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청년 귀농 인력 유치 등이 활발해지면서 완주군은 매년 1천 명씩 늘어나면서 인구 10만 명이 깨진지 36년 만인 2025년 5월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쾌거를 거두었다.

3)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 <https://www.city.go.kr>

4) 권대중, 박신형, 용성민 공저(2025), 『도시재생의 이해』, 부연사

5) 조영미(2020). 도시재생수법을 적용한 지방소멸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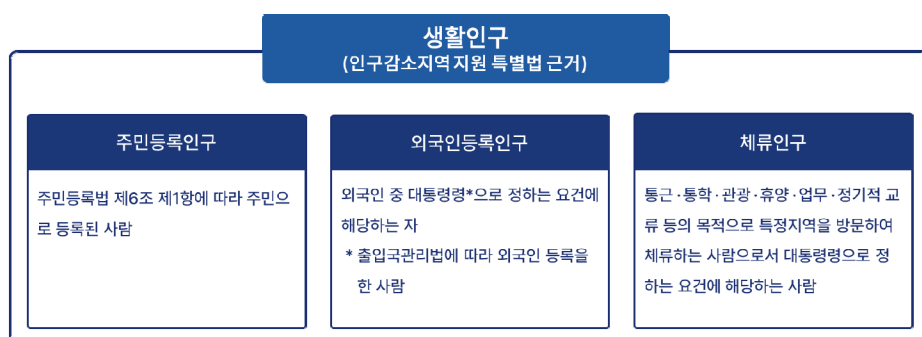
6) 임주환(2022), #7. 완주, 지방소멸대응 자족형 혁신도시의 가능성, 정의정책연구소.

다음으로 도시재생에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전주시 한옥마을과 커피도시인 강릉시를 들 수 있다. 현재 전주시는 한옥이라는 전통 건축물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체류 인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릉시는 1990년대 국내 최고의 커피 명장들이 강릉 해변에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자신만의 손맛을 내는 커피숍을 오픈하면서 커피거리와 커피축제가 생겨났으며 현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도시재생은 자연적, 구조적, 문화적, 경제적, 인적 등 지역의 모든 자산들을 활용하고, 이들을 통합한 융합적인 접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등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다.

2.2 생활인구 개념과 특성

생활인구는 2023년 1월에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며, 제2조 제2호에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림 3> 생활인구 개념 정의)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지만, 교통의 발전과 함께 인구통계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하는 지역 간의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급 비용 및 편익 간의 괴리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주민등록인구에 유동 인구와 특정 지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들까지 포함하자는 인구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들과⁸⁾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주민등록인구만으로는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과 잠재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정책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도입되었다.

행안부-통계청(2024)은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으로 관광(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통근(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통학(경남 거창군), 군인(강원 철원군), 외국인(전북 고창군) 등 유형별

7) 하혜영, 류영아(2022). 제 2013호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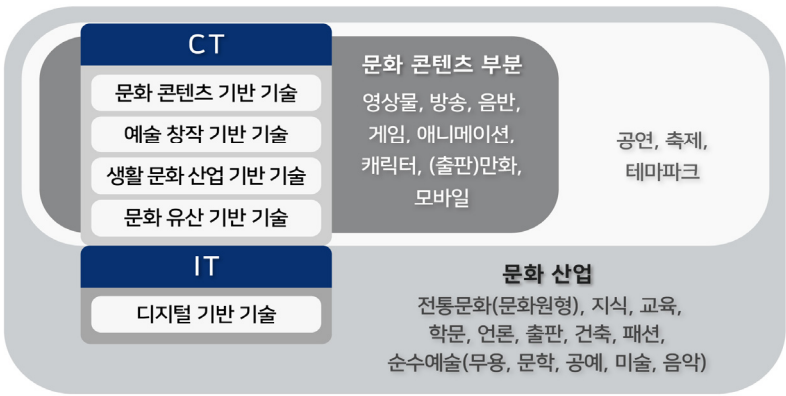
8) 하혜영, 류영아(2022). 제 2013호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로 7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산정기간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산정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고, 특히 관광유형인 단양군은 6월 기준으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수보다 8.6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 정책은 지역의 실질적 수요에 따라 교통, 상하수도, 의료,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투자 및 공공서비스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정주인구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다. 이에 각 지역마다 생활인구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한 특성과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2.3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및 체류형 콘텐츠 정의

문화콘텐츠 개념은 문화(culture)와 콘텐츠(contents)의 합성어로서 관련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림 4>와 같이 넓은 의미로 문화산업이나 문화 주체의 문화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25년 1월에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문화산업법”) 제2조(정의)에서도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고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주 : CT는 Culture & Technology 문화 관광부가 2001 부터 공식 사용

<그림 4>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범위¹⁰⁾

다음으로 아카이브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서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부터 관리까지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한 시스템과 그 결과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아카이브(archive)의 어원은 그리스어 ‘arkheion’으로 공공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기관, 시설 등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아카이브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행정 기록을 보존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0) 전라북도(2020). 전라북도 영화영상산업중장기 발전계획.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그 범위가 개인·공동체·민간 조직의 기록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관리 대상 역시 종이 문서에서부터 시청각 기록물(사진, 영상, 음성), 구술, 디지털 파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고 있다(한국기록학회, 2008).

문화콘텐츠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의미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기록은 개인 및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어 수집된 정보를 통해 증거적·정보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며, 내용(contents), 맥락(context), 구조(structure)의 요소를 토대로 그 의미가 규정된다. 특히 맥락은 기록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배경정보를 제공하고 기록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과 과정에서 생산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될 때, 해당 기록은 단순 정보 자료를 넘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이처럼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록의 가치 평가, 선별 및 분류 등도 포함된다. 이에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는 기록물 중에서도 지역의 콘텐츠 중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기에 일반적 기록관리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아카이브의 범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산업법」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한다. 이는 공공기록물이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공공의 자료가 되며, 민간기록물 역시 문화·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체류형 콘텐츠(stay-oriented contents)란 사용자들이 특정된 지역 및 공간을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 야간활동, 체험, 교류 등을 하면서 일정 시간 및 기간 동안 머무르도록 하면서 체류를 유도하는 콘텐츠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형 콘텐츠로는 주로 관광과 연계하여 ‘한 달 살기’, ‘테마여행’, ‘농촌관광’, ‘의료관광’ 등이 있다(진무위, 주상현, 양인, 2024). 이와 같이 단순히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생활로 연결되는 관광이기에 지역에 장기간 머무르며 생활 소비를 이끄는 콘텐츠들을 말한다. 체류형 콘텐츠의 주요 사례로는 도서관을 체류형 공간으로 활용한 전주의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 온천과 의료 관광 중심의 체류형 콘텐츠인 아산의 온양·도고·아산 3색 온천, 지역자원 기반의 체류형으로 담양의 숲속 캠핑·짚라인·템플스테이·생태체험 등이 있으며, 타지역에서도 이러한 관광자원들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장기체류와 재방문율을 높여 지역 활성화 및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 콘텐츠와 체류형 콘텐츠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은 특징 및 차별점들이 있다. 이처럼 일반적 콘텐츠는 단방향으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시적 소비와 체류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류형 콘텐츠는 이용자들 스스로 콘텐츠를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구조로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확장된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지역의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3〉 일반적 콘텐츠와 체류형 콘텐츠 비교

구분	일반적 콘텐츠	체류형 콘텐츠
목적	이용자들에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	이용자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콘텐츠 구조	개별적인 콘텐츠	지역의 서사 및 관광 동선 기반
생활소비	일시적이고 어디서나 소비를 할 수 있음	지속적이고 장시간 체류하면서 소비를 할 수 있음
사용자 참여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다소 수동적 참여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매우 능동적인 참여
아카이브 측면	자료 제공 및 보존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경험형 콘텐츠로 재구성

따라서 지역의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를 활용한 체류형 콘텐츠는 기록의 단순한 보존이나 제공을 넘어 아카이브된 자료를 맥락화하고, 다시 맥락화된 기록을 서사적으로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만든 경험형 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4 아카이브의 콘텐츠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아카이브를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수동적 저장소가 아닌 보존된 기록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여 문화적 가치를 재창출하는 능동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의 콘텐츠화는 보존된 기록물을 교육·문화·관광·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아카이브가 단순히 기록을 관리 및 보존하는 것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창조하는 콘텐츠 자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서은경, 박희진, 2019). 특히 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정책과 정주민구를 위한 체류형 전략의 맥락에서 볼 때 아카이브의 콘텐츠화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카이브의 콘텐츠화를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 가치가 잠재된 기록의 발굴과 수집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지역에 산재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명확한 수집 정책이 필요하며,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지역 축제 및 구술 기록 등과 같은 민간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 위험이 높아 우선적으로 아카이브해야 한다.

아카이브의 콘텐츠화는 기록에 대한 맥락화를 토대로 스토리텔링하는 것이다. 즉 아카이브된 자료인 사진, 영상, 구술 기록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함으로써 기록은 일반적 정보가 아니라 경험 가능한 이야기로 전환되어 대중적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거친 자료들은 전시, 출판, 영상,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플랫폼 등과 같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예로 마을 기록화 사업을 통해 수집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성한 전시는 지역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시민기록가 양성 등의 프로그램은 실제 기록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자극심을 제고할 수 있다. 관광 분야 역시 아카이브된 자료를 활용한 테마 투어, 역사 탐방 코스, 체험 프로그램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아카이브의 콘텐츠 자원화 과정인 주민 참여형 기록화 사업 등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기록 생산과 활용의 과정 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자원화된 콘텐츠는 예술 창작과 연계한 순환 구조 속에서 지역의 문화자원이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효과로 이어지며 체류형 콘텐츠 개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어 향후 지속 가능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형성에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3. 무주군 지역 현황 및 문화자원 분석

3.1 무주군 인구 및 지역 구조 분석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 인접해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도내 5위로 꽤 넓지만 대부분이 산악지형이라 인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하여 있지만 생활권은 대전광역시와 가까운 지역이다. 더불어 무주군은 덕유산 국립공원과 남대천, 반딧불이 서식처, 적상산 등 천혜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태권도원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다¹¹⁾.

그러나 현재 무주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10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 2만 5,0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3년 12월에는 2만 3,251명, 2024년 12월에는 2만 3,032명으로 1년 사이에 219명이 줄어들었으며, 2025년 2월에는 48명이 줄어들면서 2만 3,000명대가 붕괴되었다. 2024년 무주군의 신생아 출생수는 총 62명이었으며, 사망자 수는 346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대와 40대, 60대의 감소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무주군의 인구수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¹²⁾. 이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로 지역의 교육 및 의료서비스, 일자리 및 지역 상권 등이 더욱 약화되어 지역의 소멸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무주군의 인구감소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유출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 열악한 정주여건 등이 주요 요인이다. 무주군의 6개 읍면 중 무주읍은 주요 공공기관 위치해 있고 정주여건이 안정적이기에 무주군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설천면, 무풍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은 급격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부남면의 주민수는 1,330명으로 지역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현재 무주군의 인구 구조는 “사회적 유출(전출) → 출생 감소 → 고령화 심화 → 서비스 인프라 감소 → 도시 정착 및 인구유입 감소”라는 악순환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른 무주군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단순히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이미 자연적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곳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들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인구감소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

11) <https://namu.wiki> 무주군

12) 무주군 홈페이지 : <https://www.muju.go.kr/>

맞는 단기·중기적 인구정책과 함께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주형 생활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3.2 무주군 자원 분석

3.2.1 자연 자원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산간 지역으로 산업 기반이 도시에 비해 취약하지만,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 구천동 계곡, 남대천, 반딧불이 서식 환경 등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에 있어 장점이 있다. 예로 무주를 대표하는 반딧불이 자원은 생태적 가치 그 자체뿐 아니라, 무주를 청정과 생태의 이미지로 브랜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반딧불이라는 콘텐츠는 여름과 야간 프로그램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연중형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덕유산은 무주군과 장수군, 거창군과 함양군 지역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으로 사계절 경관과 고산 생태계를 기반으로 관광객들의 연중 방문 수요를 유도할 수 있는 무주군의 대표 자연 자원이다. 특히 무주 덕유산 리조트와 연계된 스키장과 관광 곤도라는 전 연령층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무주 구천동 계곡은 덕유산 국립공원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맑은 물로 무더운 여름을 잊게 해주며, 가을에는 붉은 단풍으로, 겨울철에는 설경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주군만의 천혜 자연환경에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무주덕유산국립공원, 남대천, 무주구천동 등의 자연환경이 인구 체류라는 인프라 측면에서 중요한 자연자원이자 문화자원이 될 수 있다. 현재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숙박을 기반으로 한 스키장과 관광 곤도라를 갖추고 있고, 태권도원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태권도의 성지로 교육, 전시, 공연, 숙박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의 자연 자원과 역사적 기록을 결합할 경우 새로운 무주만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3.2.2 문화 자원

무주군에는 자연 자원인 반딧불과 영화라는 문화콘텐츠를 자연과 결합하여 만든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가 있다. 이 축제들은 전국적 인지도 함께 축제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환경에 문화 체험을 결합한 지역의 대표 축제로, 무주가 청정 자연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축제라는 측면에 있어 기간의 제한성과 반딧불이를 주제로 하는 야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단순하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및 축제의 기억들을 기록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보존하여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탐방프로그램 및 디지털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반딧불이 탐방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일반적인

탐방에 관람객들의 관찰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관찰일지, 사진·영상 데이터 등의 기록을 연결하여 관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타 영화제는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제의 특성상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 이에 관객들의 장기체류를 위한 영화제만의 상시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영작과 함께 감독과의 대화를 기반으로 한 ‘무주산골영화제 아카이브 전시’, 무주를 주제로 한 ‘지역의 청소년 대상 영화제작 캠프’, ‘로컬 스토리 기반 단편영화 제작 지원’ 등은 축제를 연중화하고 체류형 방문객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무주 장터문화의 핵심인 무주반딧불 장터, 덕유산 의병 길, 무주 아리랑, 놀이김환태문학제, 조선왕조실록 이안재연, 낙화놀이 등의 역사 문화유산과 함께 향토 음식과 머루와인, 천마니 등과 같은 특산품도 체류형 관광 콘텐츠의 핵심 재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통합적으로 아카이브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시적으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

3.3 무주군 정책 현황 및 한계 분석

「무주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년)」을 통해 무주군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구활력 증대, 지역인재 양성, 지역자원기반 일자리 창출, 생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이에 인구활력 증대를 위한 청년센터 및 귀농 귀촌인들의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으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설립, 무주 반디예술터 조성,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단기간에 대규모 방문객이 유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25년에 무주읍이 유엔 세계관광기구로부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었으며, 인구감소 지역에 관광 인구 충전 지원을 위한 BETTER사업¹³⁾을 통해 생활인구 중심의 관광전략을 강화하여 지역 관광객 17만 명이 무주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하는 등 관광 생활인구 유입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에 진행된 무주군 대표 문화축제인 무주산골영화제는 영화제 기간 동안 3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무주반딧불축제에는 약 38만 명의 방문객과 함께 아시아 친환경축제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친환경 축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무주군은 환경 정책을 토대로 청정 자연에 기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에 무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¹³⁾. 이는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관광 자원을 통해 방문객이 유입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 및 브랜드 이미지가 청정 자연으로 정착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주군의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정책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된다.

13) 전라매일(김정오), 자연특별시 무주,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2025.12.03

다만 무주군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축제들의 제한된 일정과 자연 자원 중심의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 등의 거점 관광시설이 존재하더라도 주변 지역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면 관광객들의 방문은 체류보다는 시설 이용으로만 끝날 수 있다. 즉 단기 관광 프로그램은 지역의 재방문 및 정주형 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주군은 정책적으로 체류형 콘텐츠 개발과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과 재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3.4 무주군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현황 및 과제

무주군의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은 무주문화원과 같은 일부 기관들이 민간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활동을 진행하는 초기 단계로 공적인 기록과 함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군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 및 공공기록물이 아닌 개인 및 축제 등에서 생산되는 민간 기록물의 경우 아카이브 서비스로 전환되기 위한 수집 및 통합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예로 무주문화원은 향토사 조사 및 향토 사료실을 통해 지역의 역사 및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아카이브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매년 생산되는 무주반딧불축제 및 무주산골영화제 등의 축제 기록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옛 사진, 문서, 생활용품, 향토사 등의 중요 기록물들을 수집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주군의 아카이브는 지속적인 콘텐츠 활용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록물 활용을 위한 서비스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문화콘텐츠 기록물을 활용하여 VR/AR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와 외부 방문객의 접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의 다양한 기록물들은 다큐멘터리, 공연, 전시, 문학 등 다양한 창작의 원천이 될 수 있기에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록물의 접근성을 높여 예술 창작과의 연계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무주산골영화제와 무주반딧불축제와 같은 축제 플랫폼이 존재하더라도, 문화콘텐츠 등의 로컬 아카이브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서사를 제작으로 연결해주는 아카이브 시스템이 없으면 축제의 잠재력이 지역문화 자산으로 확장되기 어렵기에 무주군이 생활인구의 체류시간 연장, 재방문, 잠재적 정주 인구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4.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기반의 체류형 콘텐츠 모델 제안

4.1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의 개념 및 차별성

무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반딧불 체험, 어사길 체험, 무주머루와인동굴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체험 및 관광을 할 수 있는 단발적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한계가 있어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키고 정주형 생활 인구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주만의 차별화된 체류형 콘텐츠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무주라는 지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콘텐츠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아카이브가 수집된 기록을 단순히 보존 및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콘텐츠 설계를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체류 경험을 콘텐츠화하여 새롭게 기획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데 있다.

예컨대 기존의 관광 프로그램들이 ‘경험적 소비’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록을 기반으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체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 및 설계하여, 그 체류 경험이 다시 아카이브되어 환류되는 모델을 제안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문화, 역사, 생태자원 등과 연관되어진 기록들이 맥락화 및 구조화되어 데이터로 구축된 후 이를 토대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의 활동과 경험들이 다시 데이터로 기록되는 순환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관광 및 체험을 통한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기록을 생산하는 생산자로, 때론 기록을 만드는 참여자로서 체류형 콘텐츠의 새로운 핵심 자원을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는 기존의 체류형 콘텐츠(관광 프로그램 등)와 다음의 <표 4>와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표 4〉 체류형 콘텐츠 비교분석

구분	체류형 관광 콘텐츠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
체류 형태	일회성 방문	재방문 및 장기체류
체류 유도	직/간접인 관광 콘텐츠로 방문객들을 유도함	기록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획 및 설계하여 인구체류를 장기적으로 유도함
주요 특징	관광 체험 중심의 콘텐츠로 단발적으로 운영됨	기록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콘텐츠로 순환적 특성을 지님
참여자	주로 관련 콘텐츠를 일회성으로 소비함	참여자도 아카이브 기반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다시 기록을 생산함
프로그램	관광 체험프로그램, 단기 교육프로그램, 축제성 이벤트 등	기록 콘텐츠와 결합된 VR/AR전시, 장기교육프로그램 등

따라서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는 기존의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과 같이 단순한 프로그램 구성이 아니라 아카이브를 통해 현재를 경험하고 경험한 것이 재기록되어 방문객들의 재방문이 이어지는 순환형 체류 모델로써 향후 생활인구 증가에 중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2 아카이브 기반의 체류형 콘텐츠 모델 설계 방안

본 모델은 기존의 단발적 체험에서 벗어나 기록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생산한 체류 경험이 다시 기록으로 재생성되어 이용되는 순환적 형태를 지닌다. 본 모델은 “아카이브 구축 ⇒ 콘텐츠화 ⇒ 체류 경험 설계 ⇒ 기록”으로 순환되는 형태로,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 단계이다. 특히 문서, 사진, 영상, 구술기록 등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통합 및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적용하여 이질적인 기록물 간의 관계성을 설정해야 한다.

콘텐츠화는 아카이브된 기록물 중 맥락을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찾아 스토리를 재구성함으로써 기록이 문화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기록이 지닌 의미뿐만 아니라 상호간 관계를 재해석하고 서사적 의미를 토대로 지역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맥락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체류 경험 설계는 만들어진 콘텐츠를 토대로 방문객들의 체류 동선을 만드는 단계이다. 기존에 진행되던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단기간에 진행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단계에서는 방문객들의 참여 경로를 동선에 맞게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처음에는 단기 체험으로 시작하여 교육 참여 단계, 공동체 기반 활동 단계 등으로 점차 경험을 확산시키면서 몰입도를 순차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즉 방문객들의 참여 이력, 방문데이터, 경험 및 체험 패턴 등의 기록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로 생산하여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기록 환류는 3단계에서 만들어진 방문객 참여 이력, 방문 데이터(사진, 영상, 활동기록 등)의 다양한 기록을 다시 보존하는 아카이브 과정이다. 이 과정은 보존 중심의 아카이브에서 생산 및 참여형 아카이브로 전환되는 단계로, 아카이브의 지속적 확장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단순 체험형 관광과 달리 “아카이브 구축 ⇒ 콘텐츠화 ⇒ 체류 경험 설계 ⇒ 기록”이라는 순환적 구조를 통해 참여자의 경험이 기록으로 축적되고 해당 기록이 다시 이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4.3 체류형 콘텐츠의 단계적 확장 및 적용 방안

본 연구는 기존의 체험형·교육형·참여형 콘텐츠 구분을 단순하게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들의 체류를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경험구조를 재해석하여 관광 체험프로그램의 단계적 체류시간을 단계별로 늘려 정주형 생활 인구로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다.

〈표 5〉 기존의 체류형 콘텐츠 유형

유형	프로그램	체류기간	대상
체험형	전통문화체험, 족욕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체험(문화 토크 품이 쓱쓱 프로그램), 반딧불이 체험	반나절, 1주일	일반인, 가족단위 및 청소년
교육형	지역특화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국가유산교육	2박3일, 3개월	학생, 교사, 연구자
참여형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음악회, 정기 베품시장 등	1~3개월	청년, 대학생, 예술가 등

〈표 5〉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방문객의 참여와 체류 기간, 대상에 따라 체험형, 교육형, 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 6〉과 같이 체험단계, 교육단계, 참여단계로 이어지는 순환적 경로를 통해 방문객들이 체류형 콘텐츠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체류 시간을 늘려 향후 정주형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데 있다.

〈표 6〉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 모델(안)

단계	목적	체류기간	주요 특징
체험	방문객이 지역과 최초로 만나는 진입단계로 정서적 공감을 형성	단기체류를 유도하는 초기 단계	반딧불이 생태 체험, 농촌 체험, 지역 공예 활동 등의 체험으로 방문객에게 경험의 강도와 접근성 제공
교육	체험을 통해 형성된 관심을 심화시키는 확장 단계로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지식전달	중기체류 단계	지역사 교육, 생태교육, 문화해설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객의 인지적 이해 확장
참여	방문객이 지역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직접 기록을 생산	장기체류 및 생활인구 전환 단계	마을기록화 프로젝트, 문화유산보존활동 등 방문객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지역 서사의 공동 생산자로 참여

이를 토대로 무주에 “체험 ⇒ 교육 ⇒ 참여” 형태의 단계별 모델을 적용할 경우, 지역의 대표 콘텐츠인 반딧불이, 태권도, 농촌 생활문화 등을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표 7〉의 반딧불이를 활용한 “반딧불이 생태기록 아카이빙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반딧불이를 관찰하면서 생태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드는 단계별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 활동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 활동이 아닌 참여자들이 기록한 생태 데이터, 개인의 관찰 활동 등이 디지털 아카이브되어 지역 생태 연구 및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콘텐츠로도 제작될 수 있다.

〈표 7〉 반딧불이 생태기록 아카이빙 프로그램(안)

단계	프로그램 적용
아카이브 구축	참여자의 관찰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콘텐츠화	생태 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
체류경험 설계	야간 탐방, 기록 참여 프로그램
기록	참여자의 기록 재아카이빙

이처럼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 모델은 관광 콘텐츠 유형에서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기록을 중심으로 방문객들의 체류 경험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향후 생활인구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록을 활용한 참여자들이 체험과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순환적인 구조의 프로그램으로 기록이 콘텐츠로, 콘텐츠는 체류 경험으로, 체류 경험은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과 이야기는 다시 아카이브로 환류되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무주군을 사례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자연과 문화자원 기반의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체류형 콘텐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정주인구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기 방문을 장기 체류로, 나아가 잠재적 정주 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콘텐츠 모델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주군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덕유산 국립공원, 반딧불이 생태자원 등의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이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되지 못하고 단기 이벤트 중심으로만 소비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축제와 관광 중심의 무주군 정책은 일정 기간 방문객 유입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계 형성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를 단순 보존 체계가 아니라 체류 경험 설계의 기반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아카이브 구축 ⇒ 콘텐츠화 ⇒ 체류 경험 설계 ⇒ 기록”의 순환 구조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체험, 교육, 참여 단계로 이어지는 순환적 경로를 통해 방문객들이 체류형 콘텐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점진적으로 경험을 쌓은 후, 단계적 확장을 토대로 방문객의 체류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형태의 모델로 체험단계는 방문객들의 초기 유입을 담당하고, 교육단계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참여단계는 공동 기록 생산과 관계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생활인구를 지역과 정서적으로 연결시켜 정주 인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콘텐츠 아카이브는 원재료로 스토리텔링을 위한 서사 자원으로 활용되며, 동시에 새로운 기록이 다시 축적되는 환류 구조에 대한 중심 플랫폼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카이브 기반 체류형 콘텐츠 모델은 인구소멸지역에 있어 단순히 인구 수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아카이브를 통해 재구성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이론적 모델 제안에 중점을 두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모델의 평가를 위해 실제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생활인구 변화에 대한 계량적 검증과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에 대한 실증적 분석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대중, 박신행, 용성민 (2025). 도시재생의 이해. 부연사.
- 김정오 (2025. 12. 3.). 자연특별시 무주,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전라매일. <http://m.jlmaeil.com/view.php?idx=288166>
- 김현태 (2017). 프랑스 지역 영화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혜천 (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3), 1-22.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연도미상).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https://www.city.go.kr>
- 무주반딧불출제위원회 (연도미상). 무주반딧불축제. <https://www.firefly.or.kr>
- 무주산골영화제조직위원회 (연도미상). 무주산골영화제. <https://www.mjff.or.kr>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0745호 (2025. 1. 31., 타법개정).
- 민보경, 최지선 (2023).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지역유형화 분석: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6(4), 41-60. <https://doi.org/10.36700/KRUMA.2023.12.36.4.41>
- 박소현 (2024).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방문객 특성과 만족도 분석: 인구감소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 서은경, 박희진 (2019). 기록콘텐츠 기반의 아카이브 전시 활성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69-93.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069>
- 아카이빙네트워킹연구원 (2018). 지역기록자를 위한 아카이빙 길잡이 (경기아카이브총서 1). 경기도사이버도서관. <https://memory.library.kr/items/show/210052068>
- 양준석 (2025. 4. 16.). [기획-인구문제①] 인구가 사라진다 - 지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AI TIMES.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625>
- 이응진, 김은애 (202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전략에 관한 방안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17(4), 277-295. <https://doi.org/10.35173/NATR.17.4.13>
- 이정연, 최효진 (2020).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지역학 아카이브 모델 연구 -제주학아카이브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0, 83-148. <https://doi.org/10.23035/kaics.2020.1.10.083>
- 이훈 (2024). 생활인구 증가가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도시부동산연구. 15(4), 125-137. <https://doi.org/10.21447/jusre.2024.15.4.7>
- 임주환 (2022). #7. 완주, 지방소멸대응 자족형 혁신도시의 가능성. 정의정책연구소. http://www.justice-platform.org/home/post_view.php?nd=343
- 전라북도 (2020). 전라북도 영화영상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 조영미 (2020). 도시재생수법을 적용한 지방소멸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진무위, 주상현, 양인 (2024). 지방정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 익산시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8(2), 115-130. <https://doi.org/10.18398/kjlgas.2024.38.2.115>

하혜영, 류영아 (2022. 11. 17.).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48&cmsCode=CM0018&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0636>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한희정, 오효정, 김태영, 김용 (2016). 국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95-13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2.095>

행정안전부, 통계청 (2024).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공표. <https://mods.go.kr/synap/skin/doc.html?fn=f26295f4256867ee63643cbceda82fb8880688e90060c06dc209b1502144d46c&rs=/synap/preview/board/246/>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rchiving Network Research Institute (2018). Archiving guide for community recorders (Gyeonggi Archive Series 1). Gyeonggi Cyber Library. <https://memory.library.kr/items/show/210052068>

Chen, Maowei, Ju, Sanghyeon, & Yang, In (2024). Strategies for promoting stay-type tourism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Iksan City. Journal of Korea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38(2), 115-130. <http://doi.org/10.18398/kjlgas.2024.38.2.115>

Cho, Young-Mi (2020). A study on revitalization strategies of depopulated areas applying urban regeneration techniques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ct No. 20745 (2025. 1. 31).

Ha, Hui-Jeong, & Ryu, Young-a (2022, November 17). Meaning and future tasks of the new population concept “living population.”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48&cmsCode=CM0018&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0636>

Han, Hui-Jeong, Oh, Hyo-Jung, Kim, Tae-Young, & Kim, Yong (2016).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digital archiv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95-13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2.095>

-
- Jeollabuk-do (2020).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film and video industry in Jeollabuk-do.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 Kim, HyeCheun (2013). A study on the concept, types,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n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 26(3), 1-22.
- Kim, Hyun-Tae (2017). Comparative study of French regional film festivals and the Muju Film Festival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J. O. (2025, December 3). Muju, turning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into opportunity. Jeonra Maeil. <http://m.jlmaeil.com/view.php?idx=288166>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archival terminology. Yeoksabipyongsu.
- Kwon, Dae-jung, Park, Shin-hyung, & Yong, Seong-min (2025). Understanding urban regeneration. Buyonsa.
- Lee, Eung-Jin, & Kim, Eun-Ae (2021). A study on tourism content development and tourism strategies using storytelling.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17(4), 277-295. <https://doi.org/10.35173/NATR.17.4.13>
- Lee, Hoon (2024). Analysis of the impact of increasing living population on regional revitalization: Focusing on cities and counties in Gangwon Province. *Journal of Urban Real Estate Research*, 15(4), 125-137. <https://doi.org/10.21447/jusre.2024.15.4.7>
- Lee, Jungyeon, & Choi, Hyojin (2020). A study on regional studies archive model for locality documentation: Focusing on Jeju studies archive. *Records and Information Culture Research*, 10, 83-148. <https://doi.org/10.23035/kaics.2020.1.10.083>
- Lim, Ju-hwan (2022). #7. Wanju, possibility of a self-sufficient innovation city 대응 to local extinction. Justice Policy Institute. http://www.justice-platform.org/home/post_view.php?nd=343
- Min, Bogyong, & Choi, Jiseon (2023). Regional typology analysis reflecting the concept of living population: Focusing on basic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Journal of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 36(4), 41-60. <https://doi.org/10.36700/KRUMA.2023.12.36.4.4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Statistics Korea. (2024). Announcement of pilot estimation results of "living population" in depopulated areas. <https://mods.go.kr/synap/skin/doc.html?fn=f26295f4256867ee63643cbceda82fb8880688e90060c06dc209b1502144d46c&rs=/synap/preview/board/246/>
- Muju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n.d.). Muju film festival. <https://www.mjff.or.kr>
- Muju Firefly Festival Committee. (n.d.). Muju firefly festival. <https://www.firefly.or.kr>
- Park, So Hyun (2024). Analysis of visitor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f local festival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Focusing on depopulation areas (Doctoral dissertation, Mokwon University).

Seo, Eun-Gyoung, & Park, Hee Jin (2019). Strategies for activating archive exhibitions based on archival cont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1), 69-93.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069>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ct No. 19514 (2023. 7. 4.).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n.d.).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https://www.city.go.kr>

Yang, Jun-seok (2025, April 16). Population problem①: Population is disappearing—How regions collapse. *AI Times*.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625>